

직장영역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중 직장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1. 출퇴근길, 자가용 대신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기

2013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녹색생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근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승용차 및 소형승합차>가 45.9%로 가장 높았다. 게다가 도로 위 자동차 10대 중 9대가 운전자 홀로 타고 있는 '나 홀로 자가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자가용 사용은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등의 원인이 된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중형승용차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시내버스 1대는 승용차 40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연료도 절감하고 오염물질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도로혼잡이 감소되고, 주차비용 절감, 차량 유지·관리비용 절감, 도로건설 및 보수비용 절감 등 부수적인 이득이 많다.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사용으로 지구 건강도 챙기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도로 위 자가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가용을 함께 타고, 나눠 타는 방법이 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것이다. 최근 카풀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되어 어렵지 않게 카풀 친구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자가용을 나눠 타는 카셰어링(Car Sharing) 등이 있다.

자가용은 실제 약 3%의 시간에만 사용되고 나머지 97%의 시간은 주차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유지비용이 세금, 보험, 유지수리비, 주차관리 등으로 계속 지출된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함께 나눠 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발적 불편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나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함께 만드는 즐거운 회식, 섬김의 자리로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 회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회식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낭비적인 요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회식 자리에서도 자발적불편 정신을 가지고 직장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첫째, 창의적인 회식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회식은 서로 간의 화합이나 환영, 송별 등 다양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함께 상의하여 문화, 레포츠, 맛집투어 등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 보자. 회식 때만큼은 존댓말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친목 도모의 자리에서 무슨 존댓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존댓말을 하면 말을 더 부드럽게 하게 된다.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이나 거친 대화들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한 마디 씩이라도 칭찬 또는 격려의 말을 해보자. 질책과는 다르게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해도 좋으니, 회식 중에 공개적으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좋은 추억으로 그 회식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넷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자. 회식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도중에 불가피하게 먼

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 자신들이 편한 교회나 신우회 같은 곳에서만 교제를 나누려는 태도를 버리고 화식자리에 끝까지 남아보자.

다섯째, 기록을 남겨보자. 회식 후기를 남겨서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직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즐거운 추억들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이다. 회식 과정에서 찍은 사진과 오갔던 좋은 대화를 공유하면, 모두 같이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후기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새로운 제안을 덧붙이게 되면 더 좋은 회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3. 말 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사람들은 친구, 배우자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하루 중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935명의 직장인 중 3분의 2인 60.3%가 '조직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소통은 주요한 핵심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불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상명하복식의 위계문화(32.3%),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 부서 이기주의(32.1%), 지나친 단기 성과주의 강조(31.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까라면 까'야만 하는 잘못된 군대문화가 직장 내로 연결되고, 보다 거슬러 올라가 '군신유의', '장유유서'의 유교전통이 왜곡된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아닐까?

또 업무공유는 간결하고 선명하게 하고, 마음의 귀를 열고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한국 직장인의 대표적인 고충은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58.6%)이 가장 높고 '일과 생활의 균형 미흡'(47.4%)과 '직장 내 인간관계'(39.7%)가 뒤를 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상사들의 신뢰와 동료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는 업무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업무 지시를 한 상사의 신뢰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고, 동료의 지원은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정서적 연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소통에 기반한 업무의 의미,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속된 협업으로 만드는 조직 내 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역량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윤실 사무실 내에서 실천중인 자발적불편

1. 장바구니 사용
2. 텀블러 사용 (행사시에 스테인레스컵 사용)
3. 재생종이 사용
4. 이면지 적극 사용
5. 택배박스 재사용
6. 재사용 가능 우편봉투 제작
7.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plus

직장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안 쓰는 모니터 꺼내기
2. 에너지 절약 책임자 지정하기
3. 물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4. 서류봉투와 택배상자 재사용하기
5. 공동물품 잘 정리하기(새로운 사람이 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6. 업무시간에 딴 짓 하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말자
7. 공적인 물건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자
8. 최고결정권자가 단독 결정하지 않기
9. 타인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기
10. 직장동료의 강점을 칭찬해주기
11.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 도와주기
12. 정의를 위해 일하기
13. 회사 앞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 방문하기
14. 도시락 싸와서 나눠 먹기
15. 어렵고 귀찮은 일은 내가 먼저 맡아서 하기
16. 건물 내에서 발소리 조심하기
17. 여력이 될 때 업무 많은 사람 도와주기
18. 동료들과 즐거운 모임 주최하기
19. 담배는 제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기
20. 밥 먹고 나서 양치하기
21. 서로에게 배우기(재능 나눔)
22. 회사 주차장에서 불편한 자리에 먼저 주차하기
23. 영수증 정직하게 주고받기
24. 근로 기준법 준수하기
25.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기

※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